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0>

한 스님이 물었다. "하루 24시 중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나?"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자네는 하루 24시간에 쓰임을 당하고 있지만, 노승은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자네는 어느 시간에 대해 묻는 것인가?"

問 十二時中如何用心 師云 你被十二時使 老僧 使得十二時 你問那箇時

시간에 쓰임을 당하는 사람은 경계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슬픔을 슬픔이라고 하고, 기쁨을 기쁨이라 하고, 분노를 분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시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도를 깨달은 선사들은 슬픔·기쁨·분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 선사는 나이갈 때 나아가고 나아가지 못할 때는 나아가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도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순서대로 해나간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선사를 놀라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지 못하니, 선사는 시간에 이끌리지 않는다.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시간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24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에 대해 큰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적어도 영혼이 깊이 깨어날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야 가능해 진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뀌어야 한다.

한 스님이 물었다. "학인의 본분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무가 흔들리니 새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놀라서 뛰니 물이 흐리다."

問 如何是學人本分事 師云 樹搖鳥散魚驚水渾

여기서 학인의 본분사를 물은 것은 근원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다만 학인으로서 해야 할 직분에 대한 물음이다. 예컨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자못 엉뚱한 듯 대답하고 있으나 잘 생각해 보면 이보다 적합한 대답은 또 없다.

"나무가 흔들리니 새가 날아간다..."고 표현한 것은 학인은 학문에 매여 있는 단계로 아직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경계라는 것이다. 학인은 그른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옳은 것을 신봉하는 단계에 있어 매사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 무엇이 아무리 흔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래 갖고 있는 무한히 자유로운 부처의 심성을 드러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잘못 알고 몰들었던 거

올바른 정신의 백치가 되어라

지의 세계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학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백치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노승은 자네보다 못하네." 한 스님이 또 물었다. "저는 노스님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자네는 어찌하여 백치가 되었는가?"

問 如何是少神底人 師云 老僧不如你 學云 不若勝 師云 你因什麼少神

질문자가 백치(白痴)에 대해 묻자, 조주 스님은 "노승은 자네보다 못하네"라고 말함으로써 "백치는 나 같은 사람이야"라는 뜻으로 답변했다. 이어

시간을 사용하려면 영혼이 깊이 깨야한다

간택하는 마음을 버리면 도를 얻는다

질문자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해도 저는 노스님을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낮춰 말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자네가 백치인 나보다 더 못하구나. 그렇다면 자네야말로 백치군" 하고 대답을 마쳤다.

여기서 두 사람 모두 백치가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선(禪)은 아무 것도 모르는 백치와 같은 상태가 되라고 가르친다. 말쑥한 정신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정신만 없애서 마치 백치와 같이 하얀 바탕을 드러낸 상태가 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보가 되어 한 세 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진리의 말을 꼭 포수처럼 쏟아내는 인생의 스승이 되기 때문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을 깨달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안 주쳐로 삼더군요." 조주 스님이 답했다. "전에든 누군가 내게 물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오니 아직 주소(註疏)를 달지 못하고 있네."

問 至道無難唯難揀擇 時時人眾困 師云 曾有問我 直得五年分疏不得

도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하는 마

음, 즉 사랑과 미움을 선택하고, 부자와 가난을 가리고, 잘난 자와 못난 자를 구별하며,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없다면 이미 도에 들어간 것이라고 3조 승찬 스님(脣瘰·?~606년)은 말했다. 그런데 사실 간택하는 마음을 버리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다만 한번은 진리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설법을 듣거나, 불경 책을 볼 때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으로 기울여보라. 문득 한 소절에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선사들은 그렇게 단번에 깨달아서 부처의 마음을 회복했다. <신심명>에 나오는 삼조 승찬 스님의 이 법문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한 관리가 물었다. "단하 화상이 목불을 태웠는데 어찌하여 원주 스님의 눈썹이 빠졌습니까?" 조주 스님이 되물었다.

"귀관의 댁에서 산 것을 요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관리가 답했다. "머슴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 참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군요."

有官人問 丹禮庵木佛院主爲什麼眉鬚墮落 師云 官人宅中變生作熟是什麼人 云所使 師云 卻是他好手

석두(石頭) 선사의 제자 단하(丹訶) 천연 스님이 행각하다가 몹시 추운 날 어느 절에 찾아들어가서 허룻밤을 묵게 됐다. 스님은 너무 추워서 법당의 목불을 내려와서 군불을 지웠다. 지나가던 원주가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어째서 부처를 쪼개서 군불을 때는가?"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단하 스님이 말하길 "사리를 얻으려고 그랬소"라고 천연덕스레 대답했다. 원주가 기가 막혀 하면서 말하길 "목불을 태워서 어떻게 사리를 얻는다 말인가?" 하고 말했다. 이에 단하 스님이 단호하게 말하길 "사리가 없더니 좌우에 있는 부처도 마저 가져다 때야겠군"이라고 말했다. 그때 원주의 눈썹이 떨어져 버렸다는 일화가 있다.

관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 목불을 댄 사람은 단하 스님인데 눈썹이 떨어진 사람은 원주이니 무슨 이치로 그러했나고 묻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단하 스님이 솜씨가 좋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주 스님이 "단하 스님의 솜씨가 좋았던 것이오" 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선은 주로 비유와 은유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알게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직접적인 표현은 잘 하지 않는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5

꽃을 뿌린다는 것

꽃을 뿌린다는 것도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라. 이른바 정법의 공덕 꽃을 널리 선행 유정(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롭게 하고 온갖 진여의 성품을 다스려서 훌륭한 것을 두루 베푸는 것이니라. 이 공덕의 꽃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것이라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는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꽃을 뿌리면 한량없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어래게서 제자와 중생들로 하여금 끊고 파릇파릇한 것을 가위로 잘라 초목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꽃을 뿌리게 하였다고 말한다면 옳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계율을 바르게 지키는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일체의 모든 물건을 범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잘못하여 상하게 하는 것도 큰 죄를 받는데 하물며 요즘 사람처럼 정당한 계율을 무너뜨리고, 만물을 손상시키며 복을 구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익을 바라지 만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라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느냐?

[원문] 又散花者 義亦如是 所謂演說正法諸功德 饒益有情 散治一切眞如之性 普施莊嚴 此功德花佛所稱歎 究竟常住 無凋落期 若復有人 散如是花 獲無量福 若言如來 令諸弟子及衆生等 剪截斲碎 傷損草木 以爲散花 無有是處 所以者何 持淨戒者 於諸天地森羅萬像 不令觸犯 誤損者由獲大罪 況復今者加毀淨戒 傷損萬物 求於福報 欲益反損 豈有是乎.

[해설] 정법의 꽃은 일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또는 하나의 심화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더 나아가 사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으로 포교를 하라는 말입니다. 진여(眞如)는 우리의 본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 훌륭한 것을 베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공덕이 되고 인과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는 인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그 법을 주위에 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덕은 시들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들 수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자리 하나 차원의 연꽃을 말합니다.

연꽃에 피는 연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래의 마음에서 보면 하나의 마음으로 된 부분을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운 물이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물들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됐든 살인자가 됐든 본래 그 마음은 조금도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잘못 썼을 뿐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연꽃처럼 탁한 물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그 법을 남에게 전하는 일은 영원히 새지 않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향의 꽃은 자연적으로 된 물질적인 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꽃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부분은 구태여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본다면 우주는 나와 한 몸이니 대상이 없어 남의 생명을 끊는 것은 내 목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내 것을 훔치는 일이 됩니다. 계율을 나와 남이 하나라는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연꽃 같은 마음입니다.

꽃을 꺾기 되면 큰 죄를 받게 됩니다. 초목도 모두 나와 같은 생명입니다. 꽃을 꺾기 되면 꽃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꽃이나 식물도 우리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다른 생명을 끊어가면서 남에게 공덕을 짓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과로 인해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부득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산천초목이 다 생명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이익이 안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한다면 최소한의 업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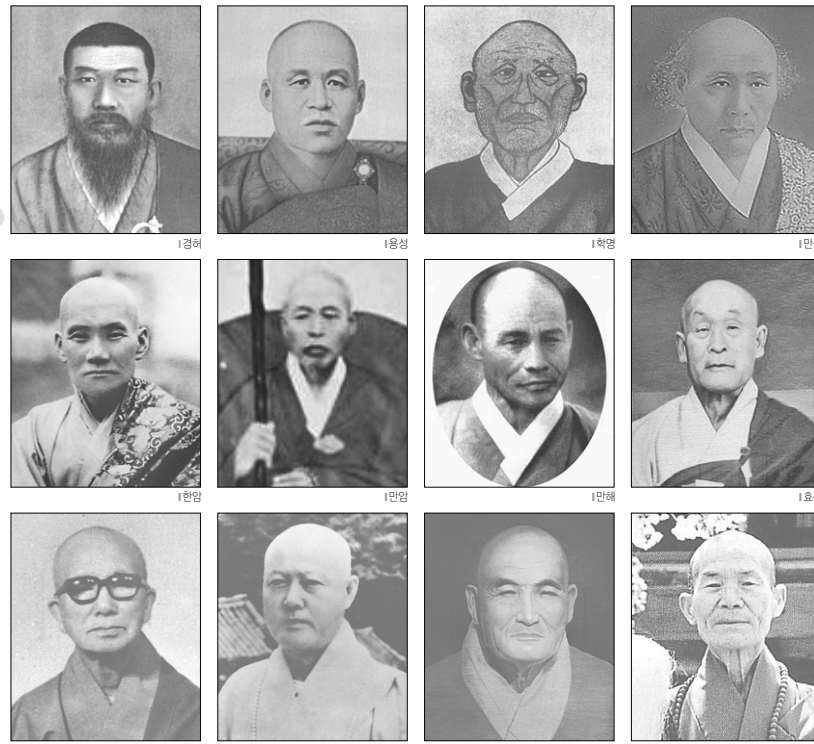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구입문의: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5~8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